

念佛修行 方法論에 대한 一考察

太元(李正模)

佛敎學科 敎授

본 논문은 염불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 경전과 역대 정토가들이 행한 내용에 근거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염불 수행이 되는가를 살펴 본 것이다. 즉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期日念佛,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時間念佛,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는 數量念佛, 소리를 높여 부르는 高聲念佛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낮게 하는 低聲念佛이 있고, 아예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默念念佛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염불 수행이 정착되면서 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즉 부처님의 本願力을 마음속 깊이 믿어야 하고, 자기의 능력과 이 시대의 상황을 자각하는 마음에서 염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원을 세우고 계를 지키면서 몸과 입,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염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 전에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하면서 예배해야 하고, 부처님의 공덕과 진리를 찬탄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염불은 일심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심이 아닌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도 공덕이 있으며, 이 산란한 염불이 발전하여 일심으로 하는 定心念佛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염불수행을 어떻게 정착해 가면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가 부처님의 본원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금생에는 福德과 지혜가 있는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보며, 내세에는 정도에 왕생하여 우리가 최고로 지향하는 無生法忍을 證得하여 성불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논하였다.

念佛修行 方法論에 대한 一考察

太元(李正模)
佛敎學科 敎授

I. 머리말

II. 염불수행의 방법

1.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期日念佛
2.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時間念佛
3. 수를 헤아리면서 하는 數量念佛

III. 염불 수행자의 마음 자세

1. 신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염불
2. 서원을 세우고 해야 하는 염불
3. 계를 지키면서 하는 持戒念佛
4. 예배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염불
5. 定心으로 念佛하는 마음 자세

IV. 염불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장소에 따라 소리를 달리해야 할 염불
2. 부처님을 염할 때는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해야 한다
3. 목탁이나 요령 그리고 북소리에 맞추어 해야 하는 염불
4. 염불할 때의 마음가짐
5. 염불할 때의 몸가짐
6. 염불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해야한다
7.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해야 하는 염불

V. 맺는 말

I. 머리말

한국 불교계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공의식이나 천도재의식 등, 어떤 의식이든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염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보통 이 염불 수행의 목적을, 현세에는 복을 얻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내세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하여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는 것

은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성불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에서 참선하는 것도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 역시 성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참선이 염불과 다른 점은 自力으로 성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어서 성취한 사람이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용수보살은 難行門이라고 하였고, 반면에 염불은 부처님의 본원력을 입어 성불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易行門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無佛時代며, 末法時代이다. 이러한 시대의 중생들의 능력은 下劣하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원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염불하면 좋을까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보고, 어떠한 자세로 염불하면 바람직한 염불일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요즈음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한 생각에 의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로 운명이 갈라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지은 업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 업은 한 생각에 의해 새로운 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악한 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서 참회와 더불어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항상 착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레 선업을 짓게 된다. 이렇듯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이 행동에 의해 새로운 업을 짓는다. 이렇듯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覺行圓滿의 부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깨달은 부처님의 생각에 몰입하는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 깨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남에게 전하려는 사명감을 가질 것이며, 결국에는 覺行圓滿한 부처의 지위에 오르려는 수행을 하여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성불하는 수행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염불수행이 부처님의 本願에 입각한 수행법으로 성불의 지름길이라 보고 논하고자 한다.

II. 염불수행의 방법

1.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期日念佛

우리가 염불을 수행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하루종일 또는 평생 동안 염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방심하면 나태하여 염불하는 수행을

접어 두고 다른 妄念에 사로 잡혀 구업을 짓기 싶다. 그래서 염불하는 행자가 기일을 정해 놓고 하면 이 날짜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 의해 게으른 생각을 덜하게 되어 열심히 또는 일념의 염불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편상 기일을 정해 놓고 염불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경전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먼저 구마리습이 번역한 『아미타경』을 보면

사리불이여, 조그마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 없다.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名號를 執持하여 혹은 一日, 혹은 二日, 혹은 三日, 혹은 四日, 혹은 五日, 혹은 六日, 혹은 七日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증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이 사람은 마음이 顛倒되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¹⁾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말한 1일은 1일 염불, 2일은 2일 염불, 3일은 3일 염불, 그리고 7일은 7일 염불로 기일을 정해 놓고 하는 염불이라 할 수가 있다. 다음 『반주삼매경』에서도

그 어떤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등이 법답게 행하되 계율을 완전히 지키면서 홀로 한 곳에 머물러 서방세계에 아미타불이 현재 개신 것처럼 염하고 들은 바를 따라 염하라. ……(中略)…… 일심으로 그것을 염하기를 하루 밤낮 혹은 七日 밤낮을 하면 七日을 지난 후에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²⁾

고 하였다. 여기서는 7일 동안 염불한 공덕에 의해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고 하여 7일 염불을 강조한 것은 다 날짜를 정해 놓고 염불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아미타고음성왕다라니경』³⁾에서는 十日念佛을 말하고 있고,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번을 채워야 하느니라”⁴⁾고 하여 7일 염과, 하권에서 “21일 동안 그 이름을 염한다면 보살은 무변의 몸을 나타내어”⁵⁾라고 하여 21일 염을 말하고 있다. 다음 명호가 입증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1) 쓰보이 순애이 著,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p.536

2) 大正藏13, 899上

3) 大正藏12, 352中~下

4) 大正藏13권, 783中

5) 앞의 책, 788上과 下에 열거하고 있다.

수행을 49일간 하라⁶⁾는 내용을 보면 49일 염이다. 이 49일의 숫자는 하권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것은 경전에 나타난 1일·7일·10일·21일·49일의 期日念佛思想이다.

이러한 사상은 중국 정토신앙으로 이어져 행해졌는데, 迦才⁷⁾는 그의 저서 『정토론』에서 중근기와 하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7일 염불과 10일 염불을 권하였고, 또 가제는 “도작 선사가 7일 동안 염불하면 백만 번을 할 수 있다”⁸⁾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기일염불과 수량염불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권하여 실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정토교를 완성하였다는 선도대사는 『관념법문』에서 “7일 밤과 낮 및 일생을 다하여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전념하여 왕생을 원하면”⁹⁾이라 하였고, “어떤 사람이든지 7일 낮과 밤, 도량에 있어 모든 반연을 버리고 수면과 눕는 것을 제거하여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진금색을 전념하라”¹⁰⁾고 하였으며, “혹은 1일, 3일, 7일, 혹은 14일, 30일, 49일, 혹은 백일에 이르고, 혹은 일생을 다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관하며, 혹은 입으로 부르고 云云”¹¹⁾이라 하였고, 『관무량수경소』에서는 “일체 범부에게 권하여 하루나 7일간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면 결정코 왕생할 수 있다”¹²⁾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기일염불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염불경』에서는 1일 염불을 疾, 7일 염불을 遲라 하여 염불성취를 시간적으로 표현하였다.¹³⁾ 이러한 기일염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萬日念佛·千日念佛·百日念佛·四十九日念佛·二十一日念佛 등으로 발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時間念佛

하루 24시간 가운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時間念佛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뒤로 미루는 마음이 있어 하루에 한번도 염불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

6) 앞의 책, 784上

7) 그의 생몰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도작보다 후대이고 선도보다는 앞 시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拙著,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391~395를 참조할 것)

8) 大正藏47, 90上, 89中

9) 앞의 책, 25中

10) 앞 주와 같음

11) 앞의 책, 25中

12) 大正藏37, 272上

13) 大正藏47, 122上, 122中, 128中 등에 나와 있다.

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으며 혹은 10분간 염불하는 것도 좋다. 또는 저녁 자기 전에 10분이나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 잠자는 시간에도 이어지는 염불이 되리라 본다. 지금 한국 불교계에서는 기도 입재 기간에는 하루 네 차례로 나누어 염불정근하는 사찰이 많듯이, 염불 수행자가 자기의 여건에 맞게 하루 어느 때 몇 시간 염불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염불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행을 한 사람을 중국 불교사에서 찾아보면 생몰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중국 수나라 시대 사람인 智通이 있는데, 그는 “매일 여섯 때에 불상 앞에서 소리 높여 염불하였다”¹⁴⁾고 한다. 도작(562-645)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서방을 향하여 침과 콧물, 대소변을 보지 않았으며, 하루 여섯때에 예배하고 공경하며 염불하는 수행을 끝까지 거르지 않았다”¹⁵⁾고 하였다. 선도는 “바르게 염불[正念佛]할 때 밤과 낮 혹은 셋째·여섯 때에 염불하라”¹⁶⁾고 하였고, 禪淨兼修의 대성자인 延壽(904-975)는 “아침에는 살아 있는 모든 生類를 놓아주고, 저녁에는 음식을 귀신에게 베풀어주었으며, 하루 여섯 때에 꽃을 뿌리며 경을 독송하기도 하고 정도의 업을 수행하였다”¹⁷⁾고 하는 것 등은 하루에 여섯 번 염불을 수행하게 한 6時念佛이다. 이것은 하루에 몇 차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염불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아랍지방의 회교도들은 자기들이 숭상하는 메카를 향해 하루에 시간을 정해 놓고 수차례 예배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염불 수행자도 하루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혹은 세 차례, 네 차례든 자기에 맞는 차례와 시간을 정해 놓고 염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수를 헤아리면서 하는 數量念佛

하루에 108번, 천 번, 만 번, 십만 번 등 자기의 역량에 맞게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량염불에 대해서는 『무량수경』에서는 ‘乃至十念’¹⁸⁾과 ‘乃至一念’¹⁹⁾이 나오고, 『관무량수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十念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생각 생각 가운데 팔십억겁 생사의 죄를

14) 大正藏49, 273下

15) 大正藏50, 593下~594中

16) 大正藏47, 24中

17) 拙著,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659

18) 쓰보이 순에이 저,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p.174

19) 앞의 책, p.232

제거하느니라”²⁰⁾고 하여 ‘具足十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一念과 十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²¹⁾ 선도대사는 一念을 一聲, 十念을 十聲²²⁾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량염불로 보아야 한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도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 번을 채워야 하느니라”²³⁾고 하여 보살의 명호를 만 번 염하게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중국의 도작선사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일과로 하여 하루에 7만 번 하고,²⁴⁾ 또 上精進者는 小豆 80石에서 90石, 中精進者는 50石, 下精進者는 20石으로 염불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게 하였으니, 수량염불의 실천자이다. 이어서 가재가 도작선사의 백만 번 염불²⁵⁾을 인용한 것은 수량염불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持戒를 청정히 하여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데 일심으로 하여 산란하지 않고 백만 번에 이르면 임종시에 正念이 現前하고 부처님의 來迎을 받는다. 이것이 곧 왕생하기 쉬운 것이다”²⁶⁾고 하였는지 모른다.

선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미타불 본원의 일념과 십념을 一聲, 十聲으로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량염불을 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관념법문』에서

하루에 따로 15번, 2년에 만 번, 하루에 따로 30번, 일년에 만 번, 하루에 따로 부처님을 만 번 등을 염하라. 또 모름지기 때를 의지하여 淨土의 莊嚴事에 대해 예배하면서 찬탄해야 한다. 크게 정진하여 혹은 3만·6만·10만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이 上品上生人이다. 스스로 나머지 공덕을 다 정토에 회향하라.²⁷⁾

고 한 것은 다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는 염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량염불 사상이 일반 민중들 속에 스며들어 貞觀 이후의 사람인 晉陽의 淸信女 裴婆는 小豆²⁸⁾를 가지

20) 앞의 책, p. 481

21) 拙著,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136~151. 답란은 염불하는 숫자에 대해 “念을 쌓고 상속하여 다른 일을 반연하지 않게 되면 곧 된다. 다시 어찌 餘暇가 있어 念하는 숫자를 알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 또한 방편으로 하여 반드시 입으로 해야지 종이에도 기록할 것은 없다”(대정장40, 843下)라고 하였다.

22) 大正藏47, 25上, 27上, 438下, 439中, 448上, 447下(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拙著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 439~449를 참조할 것)

23) 大正藏13, 783中

24) 大正藏50, 593下~594中

25) 大正藏47, 90上, 89中

26) 大正藏47, 102中

27) 앞의 책, 23中

28) 팔을 말함.

고 아미타불을 염하는 데 13石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²⁹⁾ 『염불경』에서는 “소리와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이라든가, “念一口”, “出聲念佛”³⁰⁾ 등의 술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수량염불이다.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數量念佛이 출가자와 재가자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진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 불교계의 염불수행자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출가자든 재가자든 자기의 여건에 맞게 하루에 몇 번 정해 놓고 염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다.

Ⅲ. 염불 수행자의 마음 자세

이것은 염불하는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염불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든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것은 진정한 염불 수행자가 아닐 것이고, 혹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참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점으로 나누어 생각하겠다.

1. 신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염불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는 本願이 있다. 이 본원에는 四弘誓願과 같은 總願이 있고, 아미타불의 48원, 약사여래불의 12원과 같은 別願이 있다. 이 원 가운데 특히 별원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염불해야 한다. 『華嚴經』의 현수보살품에서는 “信心이란 道를 이룬 공덕의 어머니이고, 일체 모든 선법을 증장시키며, 일체 모든 의혹을 제거하여 위없는 도를 보여 개발한다. 淨信心이란 더러움을 여의고 마음이 견고하며 교만한 마음이 제거된 공경의 근본이다. 믿음은 寶藏 가운데 제일 값이며, 청정한 손이 되어 여러 가지 수행을 받는다”³¹⁾고 했다. 이 말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염불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믿음이고, 이는 신뢰를 쌓아 행복한 가정과 어우를 만드는 일이고, 반대로 서로간에不信을 갖는다면 서로가 대립하고 시비가 생길 것이며 결국은 불행을 불러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염불하여 삼매를 성취하여 성불하려는 사람

29) 大正藏47, 100上

30) 이 출성염불에는 소리를 높여 하는 高聲念佛과 소리를 낮추어 하는 低聲念佛이 있을 수 있다. 拙著,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509~523을 참조할 것.

31) 大正藏10, 72中, 大正藏9, 433上

이 부처님의 본원을 믿는 마음이 약해서 되겠는가! 그러니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염불해야만 성취가 빠르다고 본다. 延壽는 禪淨兼修를 『淨土旨歸集』 上卷 「參禪念佛四料揀」의 四句偈³²⁾에서 획기적으로 말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 계승 가운데 “정도에 왕생하려면 진심으로 믿어야 하나니, 천 사람이 믿으면 천 사람이 왕생하고 만 사람이 믿으면 만 사람이 왕생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종경록』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千佛이라도 구제할 수 없느니라”³³⁾고 하였다.

다음 선도대사는 염불하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을 至誠心·深心·廻向發願心 등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深心을 信機와 信法으로 나누었는데, 信機는 자기의 능력이 下根機이고 죄악을 많이 짓는 범부이며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하는 범부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또 이 세계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無佛時代며 중생들의 근기가 나약한 末法時代며 五濁惡世임을 믿는 것이다. 信法은 아미타부처님의 48원이 중생을 구원하는 원임을 확고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名號를 十念만 하면 왕생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염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염불을 수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첫째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2. 서원을 세우고 해야 하는 염불

서원이란 수행자가 어떤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 서원이 없는 사람의 생은 무의미한 생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갖고 그 꿈을 하나 하나 성취하는 성취감에 의해 사는데 염불하는 수행자가 현생의 꿈과 내세의 꿈이 없어서 되겠는가! 이 현생은 아침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아 태양 빛이 나면 없어지듯이 80생이니 90생이니 하는 한 생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세의 꿈에 대해 더 굳게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이 三界에서 나고 죽는 고통을 싫어하고 극락세계의 菩提의 樂을 사모하여 선업을 짓는 대로 회향하여 정도에 나기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염불하는 업을 많이 지어 정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이것이 선도대사가 말하는 정토수행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32) 有禪無淨土 十人九蹉路 陰境若現前 暫爾隨他去
 無禪有淨土 萬修萬人去 但得見彌陀 何愁不開悟
 有禪有淨土 猶如戴角虎 現世爲人師 來生爲佛祖
 無禪無淨土 鐵床并銅柱 萬劫與千生 沒個人依怙 (新纂大日本續藏經 61, 379中~下)

33) 唯除不信人 千佛不能救(大正藏48, 670中)

세 가지 덕목 가운데 마지막 廻向發願心이라 본다. 그런데 이 회향은 자기 혼자서만 왕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살도 정신이다. 이것을 답란대사는 往相廻向이라 하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수행하여 이룬 공덕을 가지고 고통 받는 세계에 와서 구원하는 것을 還相廻向이라 하여 회향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대지도론』에서는 “행만 하는 공덕은 성취할 수 없으므로 원이 있어야 하나니, 비유하면 소가 수레를 끌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있어야 가려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이 정도에 왕생하는 원도 그러하니 행하는 복덕은 소와 같고 원은 모든 사람과 같다”³⁴⁾고 하였고, 『화엄경』의 「행원품」에서는

이 사람이 임종할 때에 최후의 찰나에 온갖 根이 모두 흩어져 망가지고 모든 천족들은 모두 떠나고, 모든 세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내지 코끼리·말·수레·보물들이 하나도 따르오지 못하지마는 이 원력만은 떠나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나 항상 그 앞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한다.³⁵⁾

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염불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현세의 원도 가져야 하지만 내세의 원을 굳건히 갖고 염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계를 지키면서 해야 하는 持戒念佛

염불하는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이 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재가자는 三歸依戒와 五戒를 지키면 될 것이고, 출가자는 그 계에 맞게 지키면서 염불수행하면 된다고 본다. 이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악을 짓는 것을 방지하고 선을 쌓는 행위로서 불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그런데 염불하는 수행자가 이를 등한시하면 모래를 솥에 넣고 쌀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불자가 마땅히 배워야 할 세 가지 덕목을 三學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첫째가 계율이다.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없기에 염불 수행자는 마땅히 지계의 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염불하는 수행자가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것은 신구의 三業의 행동인데, 이에

34) 大正藏25, 108中

35) 大正藏40, 846下

대해 알아보자. 중생들은 몸과 입, 그리고 생각으로 열 가지 惡業을 짓기도 하고, 열 가지 善業을 짓기도 한다. 즉 우리가 몸과 입, 그리고 생각 등 세 가지에 있어 선업보다 악업에 관심이 많고, 현재 행동하는 것도 좋은 쪽보다 나쁜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릇되게 행동하여 좋지 않은 결과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身業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수행자는 먼저 몸으로는 살생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邪淫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죽어 가는 생명을 살려 주고 남에게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업이 더욱 성숙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는 곳에 태어나 부처님 법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극락세계며,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곳도 극락세계다. 이와 반대로 나쁜 身業을 짓는다면 지옥이나 아귀 그리고 축생의 몸을 받는데, 지옥에 태어나면 받는 고통이 심해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축생의 경우는 머리가 어리석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설사 몸으로 선업을 지어 오래 사는 장수촌이나 즐거움만 받는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은 즐거움에 도취되어 불교에 귀의하려는 마음도 내지 않고 수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을 갖기를 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기 위한 염불이다.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의 광명을 친견할 수 있고, 친견하기만 하면 몸의 모든 나쁜 업이 녹아 없어지고 해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구업에 대해 살펴보자.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자기가 제 일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입으로 남을 헐뜯고, 윗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진리를 비방하고 성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담란대사는 이런 구업을 지으면 혀를 뽑는 고통을 받고, 병어리나 귀머거리 등 장애자가 되어 부처님 법을 들을 수도 없고, 명호를 부를 수도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입으로 짓는 惡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망어, 이치에 어긋나고 교묘하게 꾸미는 말인 綺語, 양쪽 사람에게 번갈아 서로 틀리는 말을 하여 사이를 나쁘게 하는 말인 兩舌, 남을 헐뜯고 욕하는 惡口 등이니, 이러한 것은 惡業을 짓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처님의 덕과 진리를 찬탄하는 소리, 남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는 설법의 소리 등은 남에게 이익을 주는 소리로 선업이 된다. 또 입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라면, 이는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행의 소리이다. 그래서 입을 어떻게 작용하여 무슨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善業과 惡業, 그리고 수행하는 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남을 칭찬하고 진리를 찬탄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 정도에 태어나는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정도에 태어나기만 하면 구업

으로 저은 모든 나쁜 업이 소멸되고 해탈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意業인데 여기에는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흔히 세 가지 독이라 하여 三毒이라 한다. 이 삼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므로 불교에서는 아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염불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마음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것을 그르다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여 부처님 법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법을 비방하여 무거운 죄를 범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여 바른 도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리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미타불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염불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거나 아미타여래의 평등한 의업에 대한 것을 듣기만 해도 자연히 나쁜 의업이 소멸되어 해탈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 身口意를 잘 지키는 것이 持戒精神이며, 염불 수행자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가재는 『정토론』 하권의 마지막 단에서

모름지기 持戒를 청정히 하여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되 일심으로 하여 산란하지 않고 백만 번에 이르면 임종시에 正念이 現前하고 부처님의 來迎을 받는다. 이것이 곧 왕생하기 쉬운 것이다.³⁶⁾

라고 하여 持戒念佛을 강조하였다. 즉 염불하는 사람은 미래의 惡業을 짓지 않기 위하여 持戒精神 가운데서 염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선도는 『관념법문』에서

行者가 정도에 태어나고자 하면 오직 모름지기 계를 지키면서 염불[持戒念佛]하고 아미타경을 의위라. 하루에 따로 15번, 2년에 만 번, 하루에 따로 30번, 일년에 만 번, 하루에 따로 부처님을 만 번 등을 염하라³⁷⁾

고 하여 持戒에 입각하여 염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계정신은 그의 저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³⁸⁾ 우리나라에서 지계정신의 예를 찾아보면 『삼국유사』의 「광덕암장조」

36) 大正藏47, 102中

37) 앞의 책, 23中

38) 拙著,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460~462를 참조할 것.

다. 이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라 문무왕 때에 光德과 嚴莊 두 사문은 사이가 매우 좋아 먼 저 극락세계에 가는 사람이 뒷 사람에게 알려 주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염불하였다. 광덕은 경주 분황사 서쪽 마을에서 은거하면서 신을 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아내를 두고 살았고, 업장은 南岳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하루는 석양별이 산마루에 걸쳐 있을 때 광덕이 창 밖에서 “나는 벌써 극락에 갔으니, 그대는 잘 있다가 오너라”는 소리를 듣고 광 덕이 있는 곳에 가보니 광덕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광덕의 아내를 보고 광덕이 죽었으니 나하고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으니 아내가 좋다고 하여 업장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자는데 광덕의 아내에게 정을 통하려고 하니 아내가 하는 말이 “광덕과 10여 년을 살았지만 한 번 도 같이 자 본 일이 없고 밤에는 염불만 하였다”³⁹⁾고 했다. 이 이야기는 계를 지키면서 염 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염불하는 수행자는 지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계를 지키려고 하면 나의 주변에는 나쁜 벗과 환경과의 인연을 멀리 여의고 좋은 환경을 접하고 살아야 좋은 身業을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떨 수 있으면 갖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쁜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 업으로 좋은 구업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 그리고 위치에 만족하면서 기뻐해야 탐욕하는 마음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항상 삼매 얻기를 좋아해야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길 것이다.

4. 예배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염불⁴⁰⁾

이 단원은 예배·찬탄·참회하는 마음 등 세 가지 자세로 나누어 논할 수 있으나, 이것은 몸으로 예배하면서 찬탄하고 참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한 단원으로 논할까 한다. 그래서 이 단원은 긴 문장이 되리라 생각한다.

‘예배’란 부처님을 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찬탄’이란 부처님의 말씀 중 좋은 구절을 찬양하는 행위이고, ‘참회’란 과거에 지은 罪障을 참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한 예배의 의미는 존경하는 대상을 향해 몸을 최대한 구부리거나 엎드려서

39) 大正藏, 49中~下

40)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국 정토학회 제6회 세미나에서 본인이 발표한 「淨土 諸師의 禮懺에 대한 小考」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五體投地라 할 수 있다. 예배하는 사람의 몸의 다섯 부분이 땅에 접촉하는 것은 상대에게 귀의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예배하는 수행자는 매일 조석이나 하루에 몇 차례 사찰의 법당이나 자기 가정의 정결한 방에 불상이나 보살상, 그렇지 않으면 탕화 같은 그림을 모셔 놓고 예배하는 행위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정말 부처님을 친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조금도 소홀한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 예배와 찬탄, 그리고 참회하면서 염불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들의 여록에서 검토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지니고 있는 무명과 번뇌, 또는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소멸하여 청정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용수보살은 “청정이란 모든 번뇌로 인한 흐리고 탁한 것을 여의는 것이다”⁴¹⁾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청정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信解하는 것을 이룸하여 청정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어떤 대상에 대해 견고한 믿음을 청정이라 한다”고 하는 설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 佛法僧 삼보를 믿고, 苦集滅道の 사성제를 믿으며, 六波羅蜜의 행을 믿고, 보살의 十地를 믿는 등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믿는 것이 信心淸淨이라 하였다. 이 구절 가운데는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참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참과 찬탄 그리고 참회의 목적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하는 수행을 하면 청정을 본질로 하여 이루어진 정도에 왕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용수보살과 담관대사, 그리고 선도대사, 근대의 자운율사의 사상을 살펴보면 앞으로 염불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자. 먼저 용수보살(150~250)⁴²⁾은 예배와 참회에 대하여 『십주비바사론』에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가사를 내려 어깨를 내놓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기를 晝夜 각각 三時를 하라. 공경하는 자세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가사를 내려 합장하는 이 일을 마땅히 初夜一時에 일체 부처님께 예배하고, 懺悔·勸請·隨喜·廻向해야 하며, 中夜·後夜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또 日初分·日中分·日後分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一日一夜를 합해 六時 하피 일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하되 현재 앞에 계신 것과 같이 하라.⁴³⁾

41) 『십주비바사론』, 大正藏26, 26上~中

42) 용수보살의 생애와 저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은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183~186을 참조할 것.

43) 大正藏26, 47中.

고 하여 禮拜·懺悔·勸請·隨喜·廻向·念佛 등 모든 수행 가운데 하나가 예배와 참회임을 알 수 있다. 이 예배와 참회의 근본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하루에 여섯 번 실행하는 것이 예배와 참회다. 그러면 이 참회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懺’이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요, ‘悔’란 장차 지을 허물을 회개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다. 그러기에 염불하는 사람은 먼저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맹세를 해야 한다. 참회하지 않으면 무량겁 동안의 죄업이 장애가 되나니, 마치 때묻은 옷을 빨아야 신선한 것 같이 업장을 참회하여야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용수는 “한량없는 佛道を 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이 있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 참회해야 한다”⁴⁴⁾고 하였다. 이 말 가운데는 우리 불자가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본인이 과거에 지은 惡業이라고 하는 의미가 심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즉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말미암아 불도를 구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참회하면, 이 악업이 소멸하여 쉽게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용수는 “마땅히 이 참회와 권청, 수회, 회향을 행할 때는 몸의 이양과 명문을 아끼지 않고 晝夜 가운데 부지런히 해야 한다”⁴⁵⁾고 하면서 “모든 복덕 가운데 참회의 福德이 가장 크며 業障의 죄를 제거한다”⁴⁶⁾고 하고, 또 “만약 어떤 사람이 벽지불의 도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죄업을 참회해야 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一切智慧나 不可思議智慧, 無礙智慧, 無上智慧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참회하면 業障으로 덮인 바가 없어지니 후에 다시는 죄업을 짓지 않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참회에는 큰 과보가 있다”⁴⁷⁾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용수가 얼마나 참회에 근본을 두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용수가 “아미타 등 다른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고 念하면 不退轉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마땅히 아미타부처님 등 다른 부처님을 恭敬·禮拜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⁴⁸⁾고 한 것은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염불하는 수행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배와 참회하는 작법을 처음으로 지은 사람은 용수의 영향을 받은 答蘭대사(676~642)⁴⁹⁾

44) 大正藏26, 46下

45) 앞의 책, 48上

46) 大正藏26, 48中

47) 앞의 책, 48中

48) 大正藏26, 42下

49) 答蘭의 생애와 저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은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287~290을 참조할 것.

다. 답란의 『찬아미타불계』⁵⁰⁾라는 책은 예배와 찬탄, 그리고 참회하는 儀式集이다. 이 의식집은 『無量壽經』을 근본으로 하여 지어진 偈讚으로, 찬탄 195, 예배 59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용수보살의 예배와 찬탄, 참회의 정신을 이어 받아 아미타불과 정토, 그리고 정토의 대중을 찬탄하면서 예배하는 의식집으로 만들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이 59배 예배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미타불의 광명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가 13배, 둘째는 극락세계의 기세간 장엄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가 15배, 셋째는 정토의 보살과 성문 등 대중들을 찬탄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가 8배, 넷째는 왕생하여 얻는 이익 즉 정정취, 수용공덕을 찬탄하는 예배가 4배, 다섯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이익과 염하는 이익을 찬탄하는 예배가 2배, 여섯째는 정토에 왕성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고 찬탄하는 예배가 1배, 일곱째는 아미타불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다고 하는 예배가 1배, 여덟째는 용수보살을 찬탄하면서 아미타불에 대한 예배가 2배, 아홉째는 관세음보살님께 하는 예배가 2배, 열째는 대세지보살님께 하는 예배가 2배, 열한 째는 극락세계 모든 청정 大海衆에 대한 예배가 2배, 열두 째는 한없는 세월 동안 윤회하는 본인을 아미타불께서 護念하시어 보리심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왕생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적든 많은 모든 공덕 회향하여 함께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찬탄하는 예배, 그리고 본인을 哀愍히 여기고 보호하여 법의 종자를 增長하기를 바라면서 今生과 來生에까지 부처님께서 항상 攝收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예배가 2배, 기타로는 내가 아미타 한 정토에 귀의하는 것이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 국토에 귀의하는 것이라는 것과 정토의 모든 보살들은 덕의 근본을 심기 위해 하늘의 악기로 찬탄하고, 꽃 공양하는 것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가 2배로 나눌 수 있다.

이 예배의 특징은 아미타불의 광명과 국토의 장엄, 그리고 정토의 보살과 성문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가 36배로 주를 이루고, 아미타불의 좌우보처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청정대해중보살을 찬탄하는 예배가 각각 2배다.

다음 답란의 참회적인 성격은 53번째 “본인이 한없는 세월 동안 윤회하였기 때문에 아미타불께서 나를 護念하시어 보리심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왕생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적든 많은 모든 공덕 회향하여 함께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찬탄하는 예배”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은 참회적인 성격이 있으며, 열여덟 번째 후에 나온 문구와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인 “널리 스승과 스님, 부모, 선지식 등 법계의 중생들이 세 가지 장애를 끊고 함께 아미타불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귀의하면서 참회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답란대사의 예배 속에는

50) 대정장47, 420下~421中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참회의 예배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담란대사의 예배는 참회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 왕생하기를 원하는 예배이고, 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담란대사는 하나 하나의 예배마다 “願共諸衆生 往生安樂國”이라고 하여 아미타불께 예배하는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데 회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란의 예참은 천천보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왕생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왕생하는 것이야말로 자리와 이타를 두루 갖춘 보살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란의 예배하는 방법은 아마도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 등 하루에 여섯 차례(회)를 항상 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담란은 용수보살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보살법은 낮에 세 차례, 밤에 세 차례 항상 세 가지 일⁵²⁾을 행하라. 첫째는 아침 일찍이 오른쪽 어깨를 벗고 합장하여 시방에 계신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나 이무개는 이 세상에서 나 혹은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몸과 입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악업의 죄를 시방의 부처님 앞에 참회하오니 원컨대 없애어 주시고, 다시는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저녁, 밤에도 이와 같이 한다.⁵³⁾

고 하여, 예배 속에 죄를 참회하는 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란대사는 이 용수보살의 예배법의 영향을 받아 실천했다고 여겨진다. 이 용수보살의 예배를 한 걸음 발전시켜 예배의 목적이 참회에 있지만, 이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을 정토왕생에 두고 있는 것은 천천보살의 영향이기 때문에 담란대사의 예참은 용수보살과 천천보살의 사상을 이어 받아 형성된 것이다.

이 담란의 영향을 받은 선도(613~681)는 『왕생예찬』⁵⁴⁾ 서두에서 하루 여섯 번 예배⁵⁵⁾해

51) 하루를 여섯 때로 나눈 것으로 晨朝(平旦)·日中(日正中)·日沒(日入)·初夜(人定)·中夜(夜半)·後夜(鷄鳴)으로 즉 아침·낮·해질 무렵·초저녁·한밤중·새벽녘이다. 중국의 여산 혜원은 물시계를 만들어 하루 여섯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고 하며, 신행은 하루 여섯 차례 발원문을 낭독하였고, 선도대사는 하루 여섯 차례 예배하면서 참회할 것을 『왕생예찬』에서 강조하였다.

52) 첫째는 시방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방과 삼세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공덕을 염하는 것이며, 셋째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53) 大正藏25, 110上

54) 이 『왕생예찬』을 왕생예찬이라고도 하고 간단히 예찬이라고 하며, 하루에 여섯 번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시예찬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大正藏47, 438中~448上에 수록되어 있다.

55) 이것은 앞에서 한번 언급한 용수보살이 『대지도론』(大正藏25, 110上)에서 강조한 육시예배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가 서산으로 질 때 12光佛의 명호를 찬탄하면서 19배를 한다는 예배의 구성은 담란대사와는 달리 석가모니불과 일체 賢聖에게 하는 예배로, 서방세계 허공계에 두루 하는 일체 삼보에게 먼저 예배를 올린 후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의 12光에게 예배하는데, 여기에는 찬탄하는 계송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선도는 12광불에게 예배한 후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정토의 청정대해중 보살에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둘째, 초저녁에는 『무량수경』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5言句를 만들어 찬탄하면서 24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미타불의 지혜, 정토의 불퇴전 보살, 정토의 小行菩薩, 서방의 보살과 비구의 왕생, 보살이 아미타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 하늘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과 梵聲의 역할, 광명의 역할, 정토를 보는 공덕, 왕생하여 신통과 수기를 받는 것,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공덕 등을 찬탄하면서 아미타불에게 예배하는데 이것은 첫째와 다른 점이며, 이 후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해중보살에게 예배한 것은 담란대사와 같다고 본다.

셋째, 한밤중에는 용수보살의 12禮讚偈를 7言句로 만들어 찬탄하면서 16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미타불을 천인들이 공경하는 것, 금색의 몸, 얼굴이 만월과 같다는 것, 황금의 땅과 연못, 왕생하여 얻는 신통, 정토에는 나쁜 이름과 여인이 없다는 것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며, 여기서도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해중보살에게 예배한다.

넷째, 새벽에는 천천보살의 『왕생론』 5言句 계송을 하나 하나 외우면서 20배를 하는데, 처음 1배는 첫 번째 네 계송인 “願生安樂國”의 작원문을 빼고, 원생계를 짓는 의도인 네 계송 가운데 마지막 “與佛教相應”을 삽입하여 한 구절을 만들었다. 2배에는 ‘莊嚴清淨功德’과 ‘量功德’을 합한 것이고, 3배는 ‘性功德’과 ‘形相功德’을 합한 것이며, 4배는 ‘種種事功德’과 ‘妙色功德’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5배에는 觸功德인 “寶性功德草 柔軟左右旋 觸者生勝樂 過迦旃鄰陀”를 빼고 三種功德 가운데 ‘水功德’으로 하였고, 6배는 ‘地功德’이며, 7배는 ‘虛空功德’이고, 8배에는 雨功德인 “雨華衣莊嚴 無量香普熏”과 光明功德인 “佛慧明淨日 除世癡闇冥”을 빼고 ‘妙聲功德’과 ‘主功德’으로 하였으며, 9배는 ‘眷屬功德’과 ‘受用功德’으로 하였고, 10배는 ‘無諸難功德’과 ‘大義門功德’의 앞 두 계송인 “大乘善根界 等無譏嫌名”으로 하였다. 11배는 ‘大義門功德’의 뒤 구절인 “女人及根缺 二乘種不生”과 ‘一切所求滿足功德’으로 하였는데 여기까지는 器世間莊嚴이다. 다음 12배는 부처님 장엄으로 ‘座功德’과 ‘身業功德’으로 하였고, 13배에는 口業功德과 心業功德을 빼고 ‘大衆功德’과 ‘上首功德’으로 하였으며, 14배는 ‘主功德’과 ‘不虛作住持功德’을 뺀 후 보살장엄의 ‘無餘功德’의 앞 두 계송으로 하여 부처님 장엄

과 보살장엄을 합 것이 특색이며, 15배는 보살장엄의 첫 번째인 ‘不動應化功德’의 앞 두 계송과 ‘一念遍至功德’의 두 번째 계송과 네 번째 계송을 인용한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것은 선도가 천진보살의 『왕생론』 계송 가운데 본인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선택하여 찬탄하면서 예참하였다고 본다. 다음 16배와 17배는 선도가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으로 속히 모든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기를 바라는 원과 禮懺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善法을 增長시켜 주기를 바라는 예배며, 18, 19, 20은 앞과 같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해중보살에게 하는 예배다.

다섯째, 아침에 하는 예배는 수나라 언종법사의 원왕생계를 외우면서 하는 21배인데, 이 책의 원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도가 인용한 것에 의해 분석할 수밖에 없다. 언종법사의 원왕생계는 천진보살과 같은 5言句의 계송이다. 법장보살이 서원을 세운 것과 극락세계의 장엄, 십념으로 왕생하는 것, 無生法忍의 뜻을 얻는 것 등이 주를 이루며, 19, 20, 21번의 예배는 앞과 같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해중보살에게 예배한 것이다.

여섯째, 낮에 하는 예배는 선도 스스로 7言句로 지어 16觀偈를 외우면서 20배를 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예배는 법장보살의 서원으로 생긴 전체적인 장엄을 찬탄하는 예배이고, 다음부터는 16관을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가 나오는데 이 16관이란 地下莊嚴, 地上莊嚴, 虛空藏嚴, 寶國寶林寶樹莊嚴, 七重羅網七重宮中莊嚴, 寶池莊嚴, 一金繩莊嚴, 座臺莊嚴, 彌陀身心莊嚴, 彌陀身色莊嚴, 觀世音菩薩莊嚴, 大勢地菩薩莊嚴, 삼매에 들어 서방에 이르러 보는 依報莊嚴과 正報莊嚴, 上輩修行, 中輩修行, 下輩修行 등이다. 19배는 아미타불의 국토를 感得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찬탄하는 예배고, 마지막 20배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해중보살을 합쳐 하는 예배로 앞에서 따로 따로 하는 예배와는 다르다.

이상의 육시예배의 특색을 몇 가지 첨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선도가 하는 이 육시예배는 담란대사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선도대사가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 정토수행을 하게 한 것으로 탁월한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하루 여섯 번 하는 수행은 일찍이 여산의 혜원(334~416)이 물시계(56)를 만들어 수행했다고 전하며, 信行(540~594)도 晝夜六時에 발원문을 만들어 수행한 것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첫 번째 日沒時에 하는 예배의 마지막에 “我今稽首禮 回願往生無量壽國”이라 하여 선도 스스로 왕생에 목적을 두고 예배하고, “願共衆生咸歸命 故我頂禮生彼國”이라 하여 모

56) 일명 蓮華漏라고도 하는데, 이는 혜원의 제자가 교묘한 생각으로 연꽃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든 중생과 함께 귀의하고 예배하여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였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담란대사와 같이 “願共諸衆生 往生安樂國”이라 하여 자기도 왕생을 원하지만 다른 많은 중생과 같이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에 치중함을 알 수가 있다.

셋째, 아미타불에게 예배하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기 전 “아미타부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법을增長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서원을 간절히 세우는 것으로 그의 진실하고 간절한 예참임을 엿볼 수가 있다.

넷째, 6時禮懺의 마지막 3배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해중보살에게 예배하는 것으로서 담란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선도는 참회에 상·중·하 등 세 가지가 있다고 한 후 上品懺悔에 대해서는 “몸의 털구멍 가운데서 피가 나오고, 눈 가운데서 피가 나오도록 참회하는 것”이라 하였고,⁵⁷⁾ 中品懺悔는 온몸에서 뜨거운 땀이 털구멍에서 나오고,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하는 참회며,⁵⁸⁾ 下品懺悔는 온몸에서 열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것⁵⁹⁾이라 하였다. 여기서 피가 나온다고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회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지극하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는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도는 이 三品懺悔를 열거한 후 “마음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참회하는 마음의 자세는 ‘發露懺悔’가 근본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發露懺悔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身·口·意 등 세 가지 업으로 지은 죄를 마음속에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없이 진실하게 부처님 전에 아뢰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맹세가 들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선도는 『법사찬』에서 “제자 아무개는 이 몸이 형성되었든 안 되었든 識이 형성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身口意로 열 가지 惡業을 한없이 지었습니다”⁶⁰⁾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데서 알 수 있고, “제자들은 이어서 마땅히 참회합니다”고 하여 무엇을 참회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身業으로 지은 殺生, 偷盜, 邪淫과 口業으로 지은 虛誑罪, 調戲罪, 惡口罪, 兩舌罪 그리고 意業으로 邪貪惡貪, 邪瞋, 邪痴顛倒惡見 등⁶¹⁾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선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해야 진실한 발로참회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로참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관무량수경소』에서 “모든 수행자 등은 먼저 佛像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지은 죄를 숨김없이 드

57) 大正藏47, 447上

58) 앞의 책, 447上

59) 앞의 책, 447上

60) 앞의 책, 435下

61) 앞의 책, 435中~436下

러내고[發露] 지극하게 慚愧한 마음을 내어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물을 뉘우치고 마쳐야 한다”⁶²⁾고 하여 佛像 앞에서 發露懺悔하는 법을 말하고 있으며, 또 『관념법문』에서는 『관불삼매경』의 설이라고 하여⁶³⁾ “죄를 멸하고자 한 사람은 나의 탑 가운데 들어가 나의 形像을 觀해야 하고 至心으로 참회하면 가히 죄를 멸할 것이다. 이 때 네 비구가 萬事를 다 버리고 일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탑에 들어가 佛像 앞에서 스스로 엎드려 참회하였다”⁶⁴⁾라 하여 여기서도 참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탑과 佛像 앞에서 至心으로 발로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 예배와 참회의 순서에 대해 살펴보자. 『법사찬』에서 “이제 도량 내의 범부와 성인에 대해 발로참회하면서 죄가 영원히 다 소멸하여 남음이 없기를 원하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참회하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에게 귀의하면서 예배해야 된다”⁶⁵⁾고 하여 마음 속으로 깊이 참회한 후 예배하는 것이 순서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 『법사찬』에서 “懺悔已 至心歸命阿彌陀佛”⁶⁶⁾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데서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예배와 참회, 그리고 찬탄이 같은 순간에 행해지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자운율사(1911~1992)의 예배와 찬탄, 그리고 참회에 대해 알아보자. 자운율사는 근대 한국불교계에 사라져 가는 계율사상을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라불교 후에 맥이 끊어진 정토사상을 순수 실천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염불을 권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이 예배와 찬탄사상을 갖고 있는 책은 『淨土禮敬』이고, 참회하는 책으로는 『慈悲水懺』, 『慈悲道場懺法』, 『孤獨地獄懺悔』 등이다. 이 가운데 『淨土禮敬』은 자운율사가 직접 편찬하여 발행한 것으로 예배의 의식절차를 행하기 쉽게 만들었다. 먼저 아미타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계송을 외운 뒤 서방법계에 항상 상주하고 계신 불법승 삼보께 아뢰는 예배를 시작하여 총 206배를 하는 것이다. 이 206배를 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찬탄하는 계송을 무릎을 꿇고 한 후 50배씩 세 번하고 마지막에는 56배를 한 후 본인의 서원을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후 연지대사가 지은 西方願文⁶⁷⁾을 낭독하고, 염불은 正念偈와 讚佛偈를 낭

62) 大正藏37, 266中

63) 선도는 『관념법문』에서 「如觀佛三昧海經說」이라 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이 경에 이와 딱 맞는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大正藏15, 690上~693上까지 『관불삼매해경』의 「觀像品」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4) 大正藏47, 29上~中

65) 앞의 책, 429中

66) 앞의 책, 435下, 436上, ~下 등 이외 여러 곳에 나오는 술어다.

67) 이것을 지은 사람은 株宏(1536~1615)으로 중국 명나라시대의 승려로 자는 佛慧이고, 호는 蓮池다. 이 서방 원문의 내용은 卍續藏經108, 0403-0408(新文豐出版公司印行)에 수록되어 있다.

송한 후 아미타불 염을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무관세음보살과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청정대해중보살을 세 번씩 한 후 회향계를 외우고 마친다.

먼저 예배의 대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처님에 대한 예배다. 이 예배는 本師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 하방, 상방 등 시방의 부처님에게 예배한 후 아미타불의 예배가 시작되는데, 총 151배다. 먼저 『무량수경』에 나오는 12光佛의 명호를 거론하면서 하고, 뒤는 48원의 내용과 정토의 正報莊嚴과 依報莊嚴 등 정토경전에 있는 내용을 찬탄하면서 하고, 마지막으로 담란대사나 선도대사와 달리 “盡十方三世一切諸佛”에게 예배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는 법에 대한 예배다. 먼저 정토삼부경의 經名을 하나 하나 거론하면서 하고, “盡十方三世一切尊法”에게 예배한다.

셋째는 보살에 대한 예배다. 먼저 『십왕생경』⁶⁸⁾에 나오는 觀世音菩薩부터 마지막 無邊身菩薩까지 25보살의 명호를 한 분 한 분 열거하면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 25보살이 등장하는 『십왕생경』은 眞僞의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 경에서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등 두 성인이 염불하는 수행자를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보호하기 위해 25보살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선도대사도 그의 저서 『관념법문』에 『십왕생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로지 서방의 아미타불을 염하여 왕생하기를 원하면 25보살로 하여금 수행자를 그림자가 따르듯이 보호하게 한다”⁶⁹⁾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선도도 이 『십왕생경』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도는 예배에 25보살을 한 분 한 분 열거하지 않았지만 자운율사는 열거하고 있는 점이 선도대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운율사는 본인이 평소 아미타불 다음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수보살을 25보살 다음으로 넣었고, 미륵보살, 인도의 용수보살, 마명보살, 천천보살을 25보살과 같은 지위에 넣어 예배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盡十方三世一切菩薩”로 한 것은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는 석가모니불의 제자인 가섭존자, 아난타존자, 사리불존자, 목건련존자, 가전연존자, 빈두로과라타존자, 盡十方三世一切賢聖僧에게 예배하고 마쳤다.

이러한 자운율사의 예배법은 현 한국불교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불교 조계종은 선종불교라 하지만 統佛敎的인 신앙의 예배가 아침저녁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만

68) 卍續藏經87, 0907-0909(新文豐出版公司印行)에는 『佛說十往生阿彌陀佛國經』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69) 大正藏47, 25中

아니라 다른 의식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석의 예불에는 처음 석가모니불로부터 시작하여 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체법, 보살, 일체승가를 열거하고 있다. 자운율사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처음 석가모니불에 대한 예배를 한 다음 이어서 아미타불에 대한 예배를 집중적으로 하게 한 후, 거론하지 못한 '盡十方三世一切諸佛'에 예배하게 하였다. 다음은 정토삼부경을 하나 하나 거론하면서 예배한 후 경전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한 '盡十方三世一切法'에 대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극락세계의 보살과 현세에 생존했던 보살 등 일체 보살, 석존의 제자와 일체승가에 대한 예배의 형식을 취한 것은 현 불교계를 감안한 예참법으로 탁월한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토예경』의 예찬 계송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앞에서 한번 언급하였지만, 예배하는 데 피곤하지 않게 무릎을 꿇고 계송으로 찬탄하고 예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첫 번째 찬탄의 계송을 보면 아미타불의 공덕장엄을 “빛나신 얼굴 우뚝하시고 위엄과神通 그지없으니”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는 것을 찬탄하고, 두 번째 계송은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이 정토의 공덕장엄을 누리는 것과 예경하는 수행자의 서원을 부처님이 증명하여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세 번째 계송은 시방의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공양하며 정토장엄공덕을 누리는 것 등이다. 네 번째 계송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해야 하는 이유를 찬탄하고, 전생에 지은 공덕 없이는 정토경전을 만나고 믿기 어려운 것과 정토 법문을 믿는 공덕이 얼마나 수승한가를 찬탄하는 것이며, 염불 행자 스스로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이 있는 계송이다. 그리고 예배를 다 한 후 마지막 “바라오니 서방 정토에 나뉘 상품 연꽃을 부모로 삼고 부처님 뵈고 무생법인 이루어 불퇴전 보살과 도반되어지이다”로 회향하였다. 이는 자운율사가 예참 수행자의 간절한 원을 갖게 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으로 역대 조사들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이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본다. 즉 佛道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할 때 3業을 닦는데, 첫 번째가 身業이다. 이 身業으로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下心에서 하는 예배다. 불교에서는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를 땅에 붙여 온몸으로 예배하면서 양손으로는 땅에 닿으면서 상대방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에 하는 五體投地다. 즉 예배하는 사람의 이마를 존경하는 대상의 발 밑에 대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가장 하심하는 행위이다. 자기를 높이고 자만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 대한 국집이 강한 사람으로 상대가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

으면 번민과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과 번민이 없어 마음이 평온하고 안락하여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형식적으로 하는 악수나 반배로 하는 예배는 그다지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심하는 수행의 예배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오체투지의 예배의 형식을 갖추면서 부처님께 지극히 귀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예배다. 즉 부처님이나 보살을 향하여 과거에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五體投地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잘못인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회적으로나 불교계가 맑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에서 하는 五體投地로 예배하면서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불교계를 정화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참회의 종류는 作法懺·取相懺·無生懺이 있는데, 첫째 작법참이란 부처님을 향하여 앞에서 허물을 낚낚이 말하여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일을 참회하는 것으로 행위가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이다. 둘째 취상참이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부처님이 오시어 정수리를 만져주시는 등의 상서를 얻는 것이니, 이것은 번뇌와 죄의 성품이 멸해지는 것이다. 셋째 무생참이란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 無生의 이치를 관하는 것이니, 이것은 中道를 장애하는 무명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참회하는 것이 우리가 불도를 이루는 지름길이라 본다.

셋째는 부처님과 보살들의 공덕, 또는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찬탄하면서 하는 예배다. 이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 진리에 감동을 받은 것으로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귀의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며, 진리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의 일부라 할 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전법의 정신도 있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면서 예배하는 의식이야말로 한 걸음 발전한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도대사나 자운울사가 몇 번 예배하고 나서 진리를 찬탄하고, 또 다시 예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피로감도 덜하고 부처님과 진리에 귀의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리라 생각하여 앞으로 이러한 의식을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定心으로 念佛하는 마음 자세

부처님의 명호를 염할 때 산란한 마음으로 염하면 안 되고, 한결같고 전일한 마음으로 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염불하는 사람이 입으로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一心不亂한 염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심불란한 염불을 담란은 如實하게 칭명염불로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如實하게 하는 칭명염불에는 세 가지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세 가지란 淳心·決定心·相續心 등이다. 여기서 말한 세 가지 마음에 대해 규명해 보면 첫 번째의 淳心이란 한문의 淳厚, 淳朴하다는 마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신심이 깊고 두터운 것을 말한 것이며, 지극히 순수하게 한다는 뜻이다. 淳心이란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순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의심이 없는 마음이다. 즉 신심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에 대하여 오로지 믿어 의심 없는 신심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말한 결정심은 오로지 한결같다고 하는 專一의 의미다. 즉 마음 속으로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내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 한결같이 오로지 몰입[專注]한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다.

세 번째의 相續心이란 신심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낸다는 의미로써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심이 돈독하고 전일하여 의심 없이 결정된 것이다. 즉 신심에 다른 생각이 섞여서 앞과 뒤가 다르지 않게 하여 부처님에 대해 의심이 없는 결정된 신심이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뜻이 구축된 것이야말로 散心の 염불이 아닌 定心の 염불이라 할 수 있다. 즉 담란대사는 신심이 돈독하고 한결같으며 상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세 가지가 서로 전전하여 이루는 것으로 信心不淳→不決定→念不相續되는 것이며, 또 반대로 念不相續→不得決定信→信心不淳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淳→決定→相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相續→決定→淳 등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즉 신심이 두터우면 능히 신심이 결정되고, 신심이 결정된 경우 신심이 필연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신심이 능히 상속되는 경우 신심이 그대로 결정되고, 신심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심이 능히 돈독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신심이 두텁지 못하면 결정된 신심을 얻지 못하고, 결정된 신심을 얻지 못하면 믿는 마음이 상속되지 않으며, 믿는 마음이 상속되지 못하면 결정된 신심을 얻을 수 없고, 결정된 신심이 없으면 신심이 두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사람은 淳心과 決定心, 그리고 相續하는 마음을 따로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있어 서로간 연결고리가 성립되어야만 진실한 칭명염불이 되고, 定心の 염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추어 염불하려고 노력해야 한다.⁷⁰⁾

또 담란은 이 한결같이 결정된 마음으로 염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有後心과 有間心, 반대로 無後心과 無間心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귀감을 삼아야 한다. 즉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을 有後心이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일에 매진하지 않고 자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머뭇거리는 것을 有間心이라 하며, 심념을 구족하여 염불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無後心이라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다른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순수하고 오로지 실행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을 無間心이라 하였다. 이 무후심과 무간심으로 수행하여 얻은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였다. 이 무후심과 무간심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면, 음식을 잘 못 먹은 사람이 설사병이 들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항문에서는 설사하려고 할 때 오로지 화장실을 생각하는 것은 無間心이며,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사업과 처자식을 걱정하지 않고 내세의 양식을 위해 오로지 염불하려는 것은 無後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수행자는 무간심과 무후심의 마음을 가지고 염불해야 하며, 여기서 얻는 공덕은 그 어떤 수행에서 얻는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본다.⁷⁰⁾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염불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회감법사⁷²⁾는 『석정토군의론』⁷³⁾에서 염불을 定心念佛과 散心念佛로 구별하여 定心念佛은 利根人이 수행하는 것이고, 散心念佛은 鈍根人이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하지 않았나 본다. 이것은 처음부터 定心念佛이 되지 않는 사람은 유후심과 유간심이 있는 散心念佛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차츰 진보하여 정심염불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명연수선사는 『만선동귀집』에서 『법화경』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나 적은 음성으로 찬탄하는 것이나 손가락으로 聖像을 그리는 것이나 모래를 모아 탑을 쌓는 일 등 보잘것없는 이런 선행일지라도 점점 공덕을 쌓아 모두 佛道를 이룬다”⁷⁴⁾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염불하는 사람은 오로지 定心으로 하는 염불이 공덕이 많고 多善根으로 좋은 것이지만, 중근기나 하근기인 사람은 定心으로 염불할 수 없기 때문에 散心念佛도 佛道를 이루는 공덕이 된다고 하여 散心念佛을 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수의 散心念佛은 小善根이지만 헛되지 않아 정도에 왕생할 수 있고, 언젠가 佛道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70) 拙著, 『왕생론주 강설』, pp.277~283의 내용을 참조할 것.

71) 拙著, 『왕생론주 강설』, pp.251~256의 내용을 참조할 것.

72)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선도보다 후대인 650년대 인물로 보고 있다.

73) 大正藏47, 59下~60上

74) 大正藏48, 976上

때문에 定心念佛이 되지 않는 사람도 체념하지 말고 散心念佛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정심 염불이 되고 불도를 이루리라 생각한다.

IV. 염불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장소에 따라 소리를 달리해야 할 염불

이 염불에는 소리를 내는 稱名念佛, 소리를 안 내고 마음 속으로 염하는 默念念佛로 구별할 수 있다. 칭명염불에는 큰소리를 내어 하는 高聲念佛이 있고, 적은 소리를 내어 하는 低音念佛이 있으며, 묵념염불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 남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염불이 있고, 소리 없이 마음 속으로만 염하는 염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염불 방법은 주위 환경을 감안하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여 행해야 한다. 즉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중 장소에서 큰소리를 내어 하는 염불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음염불을 하든지 입술만 움직여 하든가 마음속으로만 하는 염불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용히 집안에 혼자 있고 기운이 있을 때는 고성으로 염불을 하면 좋다. 왜냐하면 고성염불에 열 가지 공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힘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어 그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고, 이 들리는 소리의 명호를 마음 속에서 깊이 음미하는 것이 바람직한 염불이기 때문이다.

2. 부처님을 염할 때는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해야 한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사람은 서쪽을 향해 하며, 약사여래불을 염하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서 하고, 6方的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은 6방을 돌아가며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서방의 극락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서쪽을 향해 할 때는 염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집안 깨끗한 곳에 불상이나 부처님 그림을 모셔 놓고 향을 사르면서 그 곳을 향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하여 하는 것 보다 불상을 보고 하는 염불이 一心念佛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향로에 향을 사를 때는 두 손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을 올려야 하며, 향은 될 수 있으면 향기가 좋은 향을 사용해야 가족들의 반대도 없을 것이고, 집안에 좋은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3. 목탁이나 요령 그리고 북 소리에 맞추어 해야 하는 염불

목탁과 요령, 북을 치는 소리가 염불소리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신심이 더 날 것이며, 듣는 사람도 좋다고 본다. 만약 목탁 소리는 목탁 소리대로 요령 소리는 요령 소리대로 북 소리는 북 소리대로 염불 소리는 염불소리대로 제각기 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잡음에 불과한 의식이 되기 때문에 하모니가 잘 되도록 연구하고 숙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구를 사용하여 염불할 때는 꼭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남에게 소음의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한다.

4. 염불할 때의 마음가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다른 잡념 없이 일심으로 해야 하며, 지속적인 묵념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지극한 정성이 간절하고 긴장하기가 마치 喪事를 만난 듯이 하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하고, 주릴 때 밥을 생각하듯이 해야 하며,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이 해야 하고, 병이 났을 때 어진 의사를 만나 좋은 약을 구하듯이 해야 하며, 원수가 쫓아올 때 피하듯이 하고, 水災나 火災를 피하듯이 해야 하며, 닭이 알을 품듯이 꾸준히 부처님을 생각해야 한다

5. 염불할 때의 몸가짐

염불하는 사람이 세수를 안하고 옷을 단정히 입지 않고 하면 맑은 정신으로 하는 염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행해야 한다. 출가자가 법당에서 염불할 때는 장삼과 가사를 수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에서 할 때는 평상시의 옷을 단정히 입고 하면 된다. 재가자는 일부러 법의를 입을 것은 없지만, 만약 在家者에게 맞는 법의가 있다면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복을 단정히 입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정히 옷을 입고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결가부좌하고 합장하여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행위라 본다. 앞에 있는 불상이 결인을 맺고 있거든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내 몸을 비추어 주시는 형상을 생각하는 觀像念佛을 하는 것도 좋고, 부처님의 수승한 여러 가지 공덕을 마음 속에 생각하거나 극락세계의 여러 가지 장엄의 모습을 생각하는 觀想念佛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稱名念佛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6. 염불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해야 한다

염불하는 장소로 제일 좋은 곳은 조용하고 주위가 산만하지 않은 곳일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조용하고 주위가 산만하지 않는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염불에만 전심하여 끊임없이 계속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처음 염불을 시작한 사람은 염불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곳을 찾아서 시작하고, 이것이 익숙하면 번잡한 곳에 가더라도 그다지 주위 환경에 장애받지 않고 염불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전념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하여야 한다.

7.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해야 하는 염불

염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망상이 일어난다. 이 망상 속에서 수행하다 보면 망상이 없는 수행이 있다가 다시 망상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꾸준히 염불해야 한다. 이 망상은 무명과 번뇌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끊어버린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망상을 끊지 못한 범부로서 어떻게 망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의 근기는 망상을 끊지 못한 범부이며, 아주 根機가 下劣한 사람으로 죄악을 많이 지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도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염불하면 왕생시킨다고 한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임을 알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염불 수행을 해야한다. 왕성한 靈驗錄에는 망상을 끊지 못한 범부가 염불하여 왕생하였다고 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평소에 믿음과 서원이 견고하여 생각마다 물리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본원에 부합하므로 아미타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입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비유를 들면 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염불하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는 것은 마치 그믐밤에는 구름이 없더라도 밝은 달빛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고, 염불하는 사람은 망상이 있더라도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맑은 날에 구름이 조금 있더라도 햇빛이 피져서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망상이 있다고 해서 염불을 중단하면 안 되니 계속 염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V. 맺는 말

이상으로 보면 염불을 몇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이러한 염불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期日念佛,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해야겠다고 하는 時間念佛,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는 數量念佛, 소리를 높여 부르는 高聲念佛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낮게 하는 低聲念佛이 있고, 아예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默念念佛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염불수행이 정착되면서 행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본고에서는 앞으로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즉 부처님의 本願力을 마음 속 깊이 믿어야 하고, 자기의 능력과 이 시대의 상황을 자각하는 마음에서 염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원을 세우고 계를 지키면서 몸과 입,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염불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 전에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하면서 예배해야 하고, 부처님의 공덕과 진리를 찬탄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염불은 일심으로 하는 습관을 가져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심이 아닌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도 공덕이 있으며, 이 산란한 염불이 발전하여 일심으로 하는 定心念佛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염불하면 좋은가를 생각해 보았다. 즉 장소에 따라 염불하는 소리의 高低를 달리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집안에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을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염불할 때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 불교계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염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듯이 조계종에서 아무리 참선만을 주장하지만 염불 수행이 우리의 의식생활에 일반화 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불교계에 어떻게 정착해 가면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가 부처님의 본원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今生에는 福德과 지혜가 있는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보며, 내세에는 정토에 왕생하여 우리가 최고로 지향하는 無生法忍을 證得하여 성불하리라 본다. 다시 말하면 염불하는 수행 법이야말로 빨리 성불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면서 본고를 마친다.